"올 내신반영률 30%선 협의"

교육부 "10%선 용납 어려워…대학들과 언제든 논의"

교육부는 각 대학이 내신 반영비율의 연차 확대를 요구한다면 올해 내신 반영비율을 30% 정도로 잡고 협의가 가능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를 원하는 대학이라도 올해 반영비율을 10% 선에서 정하겠다고 하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차 확대 시한은 이미 발표한 대로 길어야 3년까지 허용할 수 있고 그 이상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신 반영비율의 연차 확대시 각 대학은 2008학년도 30~40%, 2009학년도 40~50%로 2년 시한을 제시하거나 2008학년도 30%, 2009학년도 40%, 2010학년도 50% 등으로 3년에 걸쳐 확대하는 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모임을 통해 내신 반영비율과 발표 시점 등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달 29일 총회를 통해 올해 내신반영률을 50%까지 급격히 확대하고 입시 요강을 8월20일까지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학들의 입장을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부와 대학 간 협의 결과가 주내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학 측이 각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현재의 내신 반영 정책과 방법이 변별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내신 반영 비율을 연차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전했다. 특히 수능과 논술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거나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 있느냐 여부가 중요한 협의 기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발표 시한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협의에 응하기로 했으며 협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접 나서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리산, 국제적 국립공원 인증

오대산·월악산·소백산도

지리산과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 등 4개 국립공원이 설악산에 이어 UNEP(유엔환경계획) 세계보전모니터링센터(WCMC.World Conservation Monitoring Centre)로부터 국제적 국립공원으로 인증받았다.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리산 등 4개 국립공원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지역 분류기준(Ⅰ~Ⅵ)상 Ⅴ등급(경관보호지역)에 속했으나 최근 Ⅱ등급(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Ⅴ등급은 해당 지역이 관광·휴양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인데 비해 Ⅱ등급은 생태계가 우수하고 잘 관리되고 있으며 자연상태 그대로 또는 자연과 가까운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해야 할 가치를 평가받은 것이다.

Ⅰ등급 지역의 경우 a유형(엄정 보호구역)은 엄격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대중의 접근이 제한되고 b유형(원시야생지역)은 야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이용만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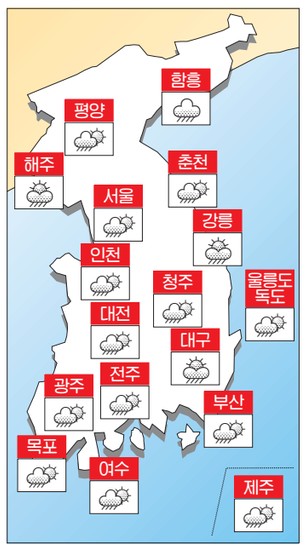
전 세계 11만4천296개 보호지역(1천938만㎢) 중 83% 정도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 있으며 우리나라 20개 국립공원은 모두 Ⅴ등급으로 분류됐으나 작년 1월 설악산이 처음으로 Ⅱ등급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장맛비 주춤

7월 2일 (음 5월 18일) ◇전국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한두차례 비가 온 후 차차 개겠다.

광 주	한두차례 비 후 갬	21~27℃
목 포	한두차례 비 후 갬	22~26℃
여 수	한두차례 비 후 갬	20~24℃
완 도	한두차례 비 후 갬	21~26℃
구 례	한두차례 비 후 갬	21~28℃
해 남	한두차례 비 후 갬	21~27℃
장 흥	한두차례 비 후 갬	21~27℃
고 흥	한두차례 비 후 갬	20~26℃
순 천	한두차례 비 후 갬	20~28℃
영 광	한두차례 비 후 갬	21~27℃
진 도	한두차례 비 후 갬	21~26℃
전 주	한두차례 비 후 갬	21~28℃
남 원	한두차례 비 후 갬	20~28℃
흑산도	한두차례 비 후 갬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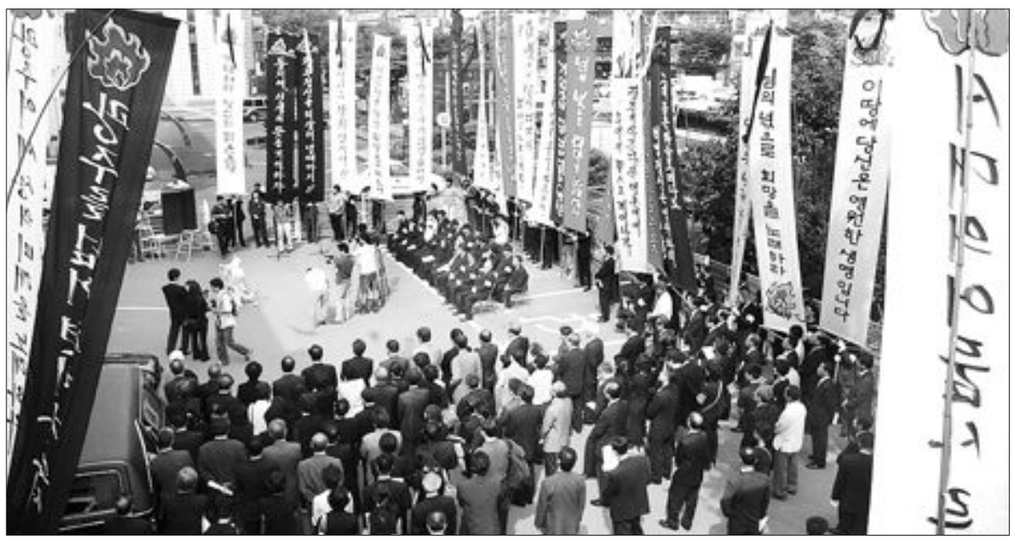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먼바다=남서~북서풍 파고 1.0~2.0m

목 포 밀물 03:25 15:17 썰물 08:44 20:37
여 수 밀물 10:09 22:47 썰물 04:18 16:06

▲해뜸 05:22 ▲해짐 19:51 ▲달뜸 21:27 ▲달짐 06:3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화)	4(수)	5(목)	6(금)	7(토)	8(월)
날 씨						
최저/최고	21/29	22/29	21/30	21/29	21/28	22/29



지난달 30일 고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의 노제가 열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 50여 개의 만장이 휘날리고 있다. 살풀이와 극단 '토박이' 추모 공연 등이 펼쳐진 노제에서 참석자들은 고인의 올곧은 뜻을 되새겼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멍에' 내려놓고 광주의 품에 잠들다

故 윤한봉씨 영결식…국민훈장 동백장 추서

5·18의 멍에를 지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들불처럼 살았던 고(故) 윤한봉 전 '민족미래연구소장'의 영결식이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에서 치러졌다.

이날 오전 11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족, 손학규 전 경기지사, 권영길·김태홍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 윤한봉 선생 장례위원회' 함세웅 위원장은 조사를 통해 "광주와 5·18 정신이 부끄럽지 않게 5월 정신으로 되돌아 갈 것을 고인 앞에서 다짐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노제(路祭)에선 연대시 낭송, 진도 상여 놀이인 다시래기 공연, 박강희 살풀이 공연이 열려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극단 '토박이'는 망자가 입었던 옷에서 아기를 꺼내는 퍼포먼스를 통해 "5·18은 명예가 아닌 멍에다"는 고인의 평소 뜻이 부활하기를 기원했다.

또 '광주·전남민족문화작가회의'(회장 박혜강) 회원 50명이 글을 짓고, 광주미술인공동체 화가 장경철(45)씨 등이 글씨를 쓴 만장(輓章) 50개가 나부꼈다. 운구는 금남로와 '민족미래연구소'가 있던 수창초교, 5·18 기념문화관, 고인이 기념사업 이사장을 맡았던 '들불야학', 5·18 자유공원 등을 거친 뒤 국립 5·18 민주묘지 6 묘역에 안장됐다.

정부는 이날 윤 전 소장의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 국민훈장 동백장을 추서했다.

강진 출신인 고인은 5·18 이후 미국으로 밀항해 1993년 귀국 후 '민족미래연구소장' '들불열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맡아 5·18 정신 계승 활동을 벌이던 중 폐기종으로 지난 27일 59살을 일기로 별세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공시설물 디자인 심의 의무화

광주시 전국 최초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고,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디자인은 ▲교량·육교·방음벽 등 도시구조물 ▲가로등, 관광안내도, 가로녹지시설, 휴지통, 공중화장실, 버스승강장 등 가로시설물 ▲분전함 등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등 도로변에 설치되는 거의 모든 공공시설물에 적용된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예술성·창의성·절제 등 5개 분야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토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공공디자인 기본목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디지인안의 공모 및 비용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제반 공공시설물은 의무적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대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선정

바이오에너지 연구 '활기'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신에너지 분야 소재·부품산업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을 추진 중인 전남대가 최근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에도 선정돼 신에너지 분야 연구 주도권을 확고히 다지게 됐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단(연구책임자 박돈희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이 산자부의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오는 8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5년간 총 30억8천700만원을 지원받아 전남대 내에 바이오에너지 특성화대학원 협동과정을 개설, 미래 핵심 산업으로 손꼽히는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나서게 된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국내 대학·산업체·연구소·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무형 전문교육·산학연 협동 전문교육·국제화 전문교육을 받은 우수한 석·박사들을 배출하고, 산학연 협력연구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단에는 전남대 생명과학기술학부·응용화학공학부·건설지구환경공학부·기계시스템공학부·생물학과·식물생명공학부·응용생물공학부 소속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조선대·순천대·목포대와도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학문 분야간의 융합을 통해 바이오디젤 생산기술·탄수화물 유래 신소재 개발·폐플라스틱 재활용기술·섬유성 폐자원의 고부가화 생물전환기술·엔진 배출가스 후처리기술·에너지 작물 육종 등 바이오에너지 관련 핵심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바이오에너지 산업은 석유에너지를 대체할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존의 석유자원을 대체할 생물자원 활용기술이나 에너지와 자원을 절감할 수 있는 청정 바이오 기술을 개발하는 산업을 말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7만5천명 대상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7년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7월2일~9월14일(75일간) 실시하며 대출 금리를 6.66%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2학기부터 17만5천명(연인원 35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거치 기간 중 이자 전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저소득층 학생은 이자의 2%를 지원받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기간에는 본인이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금리 6.66%는 지난 1학기 6.59%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합뉴스